

《勸하고 싶은 책》

ISO制定, 國際的 標準에 따른 學術論文作成法 準則
鄭 駉 謨 譯編

펼쳐 쓴 글 한줄을 쓰기 위해 한주일이나 고민했다고 한다. 칼라일은 자기가 써 는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몇해를 걸려 쓴 원고를 불살라 버렸다고 한다. 이 대석학들은 왜 고민을 하였을까, 왜 피눈물나게 애써 엮은 원고를 불살라 버렸을까, 이것이 후세에 하나의 경적이 되고 교훈이 되고 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다. 그러나 붓을 든다는 것을 저울에 달아진 몇카락의 토끼털로 알고 가느다란 대(竹)토막무게만큼 생각하고 함부로 휘두르며 방아를 찧는 일이 간혹 없지 않아 讀者의 노여움을 사고 있는 일이 얼마든지 보인다. 그의 예는 그만두고라도 그 흐름을 대충 훑어 보면 몇가지 있다. 논문이라고 하여 거창한 제목은 걸어 놓고 창의성이 전혀 없는지 양두구육식의 것이 있는가 하면 예보적(豫報的) 전달이나 예비적(豫備的) 초고는 고사하고 이미 있었던 논(論)을 분석하여 비미한 평이나 내린 자취마저 엿볼 수 없는 글이 허다하다. 실로 한심하다기 보다 그 죄악을 어디다 씻을 것인가. 이런 류의 글들은 대개 문장을 보면 몸찌 난삽하고 거칠어 두번 세번 읽어 보아도 무엇을 뜻하는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엮어진 글들은 소재를 어떻게 밝히며 기성의 지식을 어떠한 요령으로 설명하느냐에 있어서도 창의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논문은 고사하고 「텍스트 북」의 개념마저도 아랑곳 없는 것이 없지 않다. 거저 이 책 저 책을 베껴다 이곳 저곳에 배열하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고 흰 종이에 검은 활자만 나타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류이다. 실로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배경이 이로 말미아마 얼마나 혼란되는 것인가 독자의 시간을 얼마나 뺏는 것인가 이를 無視한다면 이는 인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읽고 혀를 차는 빈축의 대상이 되는 글처럼 될 바에는 차라리 붓을 쥐는 것이 오히려 낡은 감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체념해 버리면 평생 글이라고는 보기가 싫고 붓을 보면 두려워서 의중을 느낄것이 아닌가. 사실에 가까운 논리로 전개했지만 그러나 알고서 범하는 작위범보다는 오히려 모르고 범하는 부작위범이 없지 않다. 전자는 근본적인 자세가 문제이니 여기서는 논의로 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전연 구출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 대하여 이런 경필모 교수가 유네스코에서 1962년부터 착수하여 1969년에 매듭진 「국제적 표준에 따른 학술논문 작성법 준칙」을 우리말로 알뜰히 옮겨 놓은 글이 나왔다. 진실로 경하해 마지 않는 바이다.

이 글 속에는 논문을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대상은 어느 층으로 잡고 붓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이미 있었던 의견을 어떻게 자기의 의견과 결부시키고 어떻게 구별시켜야 하는가. 초록은 어떻게 쓰며 각주는 어떻게 달아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문제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고 그 유의점을 날카롭게 못박아 놓은 것이 근 백조항이나 된다.

주옥같이 다듬어진 짤막한 조항들은 모두 핵심을 찌르고 핵만을 골라낸 조문이어서 한 자도 빼 놓을 것이 없다.

그 중에도 문장은 평면간결(平面簡潔)히 쓰고 이로(理路)를 정연히 전개해야 하며 독자를 자기 위에 올려 놓고 냉철한 입장은 남독시켜야 하며 제목하나 정하더라도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함을 다짐 해 주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자기가 쓰고 있는 논문에 창의적인 것인가. 예보적인 것인가. 예비적인 초고인가. 기성논에 대한 논평인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고 공인을 받을 수 있을 것 이외에는 아무리 미사나 려구로 엮은 재치있는 솜씨로 표현된 글이라도 논문의 가치를 상실하며 객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못박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논문의 목적이 뚜렷하더라도 자신이 접해 보지도 못한 문헌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필자 자신이 직접 본 것일지라도 원자료가 아니면 입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초록도 붙여야 하고, 기술적이거나 분석적인 서지리스트 또는 초록이나 비평적인 평논의 표목 등 참조의 형식에 대하여도 논문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더욱 주목된다.

특히 정교수가 옮겨 논 이 작으마한 책자에는 유네스코에서 소개한 「출판을 위한 과학논문작성법지침」과 「출판을 위한 저자초록작성법지침」과 「ISO 권고 R960. 서지적 참조」와 「ISO 권고 R215.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고의 표현」 등 네가지를 뚫아 놓고, 학술 논문작성에 있어서 저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사항만을 골라 본 논문과 초록 및 주기 등 세편으로 다시금 편성해 놓았을 뿐 아니라 각주에 붙여질 한국대문까지 당해조항에 서양문헌과 같이 붙여는 것이 있다. 이것은 확실히 저자가 시도한 것처럼 과학논문을 쓰려는 초학자들에게 논문작성상에 있어 유용될 효과적인 「틀」임에 틀림이 없다.

(中央大學校 文科大學 助教授) 沈 暘 俊